



서울YMCA 막장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드라마 건전성 회복 시급

지난 10월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이하 서울YMCA)는 3개월간의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막장드라마 Worst 5'를 발표했다. 선정된 드라마 중에는 전체 1/4이 막장 요소로 채워진 드라마가 있는가하면, 시청률도 20%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장드라마는 광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반감시키고,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에 전이되어 거부감을 양산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도 있다.(드라마 내용이 기업 및 광고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 김봉현 교수, 2010) 한국광고주협회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주목, 방송사에 드라마 건전성 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드라마 모니터링 사업을 지원하며 막장드라마 개선에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서울YMCA는 지난 10월 31일 막장드라마 퇴출 및 드라마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상파 방송3사에서 방송된 드라마들을 대상으로 막장드라마 모니터를 실시해 막장 요소별 노출시간이 높은 막장드라마 Worst 5'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표 1> 막장드라마 Worst 5

순위	프로그램명	방송사(채널)/분류	시청률	막장 요소 노출비율
1	반짝반짝 빛나는	MBC/ 주말드라마	20.15%	24.10%
2	미스 리플리	MBC/ 월화드라마	12%	20.42%
3	미쓰 아줌마	SBS/ 아침드라마	10.13%	15.95%
4	신기생던	SBS/ 주말드라마	21.6%	14.64%
5	사랑을 믿어요	KBS2/주말드라마	25.2%	12.37%

* 막장드라마 Worst 5'는 7~9월 지상파 3사 방영 드라마 29편을 대상으로 선정성, 폭력성, 비윤리성, 비현실성, 현실왜곡 등 막장 요소들의 노출빈도시간을 합산한 수치를 드라마별 총 방송시간의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를 반영한 결과임

* 노출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기

* 시청률 제공 : TNmS

이번 모니터링은 7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4개 채널)에서 방송된 드라마를 대상으로, 비윤리성, 비현실성, 선정성, 폭력성, 현실왜곡(고정관념 강화) 등을 평가기준으로, 드라마 막장 요소별 노출시간을 기록, 이를 수치화, 계량화하여 방송시간 대비 막장 요소 노출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 2> 모니터 대상 드라마

요일	시간대	KBS1	KBS2	MBC	SBS
아침드라마	오전		두근두근달콤 (09:20) 46회-105회	당신참예쁘다 (07:50) 26회-125회	미쓰아줌마 (08:40) 26회-83회
일일드라마	저녁	우리집여자들 (08:25) 36회-95회		불굴의며느리 (08:15) 21회-77회	당신이잠든사이 (07:20) 36회-90회
월화드라마	저녁		동안미녀 (09:55) 19, 20회 스파이명일 1회-18회 포세이돈 1-2회	미스리플리 (09:55) 11회-16회 계백 1회-18회	무사백동수 (09:55) 1회-24회
수목드라마	저녁		로맨스타운 (10:00) 17회-20회 공주의남자 1회-20회	난내게만했어 (09:55) 13회-20회 지고는못살아 1회-10회	시티헌터 (09:55) 13회-20회 보스를지켜라 1회-16회
주말드라마	저녁		사랑을 믿어요 (07:55) 53회-62회 오작교형제들 1회-16회	반짝반짝빛나는 (08:40) 43회-54회 천변의입맞춤 1회-12회 내마음이들리니 (09:50) 29회-30회 예정만만세 1회-22회	내사랑내결에 (08:40) 19회-42회 신기생던 (09:50) 49회-52회 여인의향기 1회-16회 품나개살거야 1회-4회

* 농촌드라마, 단막극, 특집편성극 등을 제외한 주2회 이상 정규 편성 드라마 총 29편을 대상으로 함

* 모니터 기간 중 종료한 드라마와 신규로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들은 중복해서 표기함

<표 3> 모니터 평가 요소

선정성	극의 흐름과 상관없는 배우의 노출, 불필요한 성적 암시, 성적 행위를 상상하게 만드는 과도한 행동이나 표현
폭력성	협박, 폭행 등의 범죄 장면, 일상적인 폭력 외에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 등장, 언어적 폭력이 지나친 경우(경미한 비속어와 욕설 등장은 극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 제외), 따귀의 경우 쌍방이 교환하거나 몸이 움츠릴 정도로 과격하면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외
비윤리성	외도, 불륜, 패륜 등 사회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면이나 내용
비현실성	인물의 가족관계(부모/시부모, 아내의 부모, 자녀, 며느리, 남편과 아내, 동기와 그 배우자, 사돈지간, 친구 등)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규범을 벗어난 비정상적 관계묘사나 표현, 억지스럽고 작위적인 관계 혹은 상황설정 등과 우연성 남발, 기억상실증, 출생의 비밀, 의외성을 띤 개과천선, 배신, 복수, 배다른 형제 혹은 이복남매의 등장, 불치병 등의 주제가 단순히 사실(fact)이나 현실성을 무시한 작위적 상황 전개로 이어지는 경우
현실왜곡 (고정관념 강화)	남성/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특정계층(상류층 혹은 하류층), 직업 혹은 기업 등에 대한 고정화된 심각한 부정적 이미지 묘사 혹은 표현

서울YMCA는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를 3개월간 모니터한 결과, '막장드라마 Worst 5'에 뽑힌 드라마를 비롯한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소위 막장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발견됐다"고 밝히며, "특히 막장드라마 Worst 5'에 뽑힌 드라마 중 3편은 2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모니터 평가 요소별 순위에서 대부분의 드라마들도 시청률 10~20%가 넘는 인기 드라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방송사들이 시

서울YMCA는 이번 막장드라마 모니터 결과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성, 폭력성, 비윤리성, 비현실성, 현실왜곡 등으로 얼룩진 드라마들을 시간과 장르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막장드라마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률을 담보하기 위해 막장 요소가 담긴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시청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본래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해 드라마를 막장화해가는 경향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막장드라마 1위에 선정된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은 총 방송시간 720분 중 막장 요소 노출시간이 173분 이상으로 방송시간 대비 막장 요소 노출비율이 24.10%에 달했으며, 특히 비현실성과 현실왜곡 등의 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막장드라마로 인한 시청자 정서 황폐화, 청소년에게 왜곡된 가치관 심어줄 수 있어

서울YMCA는 이번 막장드라마 모니터 결과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성, 폭력성, 비윤리성, 비현실성, 현실왜곡 등으로 얼룩진 드라마들을 시간과 장르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막장드라마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정서는 그만큼 황폐해지고,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시청자들이 완성도 높고 질 높은 드라마를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YMCA는 시청률에 매몰돼 막장드라마를 양산해 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거의 모든 드라마에 퍼진 막장 요소들을 하루 빨리 걷어 내고, 애초의 좋은 기획의도를 살린 양질의 드라마가 제작 방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막장드라마 퇴출 및 드라마 건전성 회복을 위해 방송모니터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광고 및 협찬 없이는 드라마 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광고주협회가 막장드라마 개선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협회측에 요청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막장드라마가 광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광고의 비용대비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시민단체의 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방송사에 드라마 건전성 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010 한국광고주대회 광고주선언' 을 통해 우리 사회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차별화를 통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공표한 만큼 광고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광고집행에 있어 시청률뿐만 아니라 드라마 내용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선정과 시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 시민단체의 드라마 모니터링 사업 지원을 통해 막장드라마 생산을 견제하고 여론 환기에 힘쓸 계획이다. KAA 이수지 기자 susie@kaa.or.kr